

연예

14

2019년 4월 18일 목요일

스포츠동아



17일 오전 서울 종로 서울극장에서 한국영화 100년 기념사업추진위 안성기 홍보위원장, 장미희·이장호 공동위원장, 유인택·오석근 공동부위원장(왼쪽부터)이 기자회견하고 있다. 사진제공 | 영화진흥위원회

100명·100초·100편

한국영화 100년 기념 영상 제작기로 영화 '아리랑' '만추' 복원도 팔견어

100명의 감독이 한국영화 100년을 기념하며 100초짜리 영상 각 100편을 제작한다. 10월 서울 광화문광장에서는 관련 대규모 무대가 펼쳐진다.

영화진흥위원회와 한국영화 100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추진위)는 17일 서울 종로구 서울극장 서울아트시네마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추진위는 “김수용·이두용·강제규·이준의 등 남성감독 50인, 이미례 등 여성감독 50인이 100초 영상물 100편을 5월부터 제작해 10월26일과 27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여는 ‘한국영화 100년 기념 페스티벌’ 100일 전부터 매일 한 편씩 유튜브에서 공개한다”고 밝혔다. 또 한국영화 인명사전과 100가지 주요 사건을 다룬 단행본, 다큐멘터리 등 홍보 영상도 제작한다. 특별 순회 상영회를 여는 추진위는 나윤규 감독의 '아리랑'과 이만희 감독의 '만추' 등 한국 영화사의 중요한 필름 영화를 발굴해 디지털 복원한다.

이날 이장호 위원장은 “선배와 젊은 영화인 사이의 단절을 메워야 한다”면서 “돈의 논리와 시스템으로 영화가 제작되면서 다양성이 없어졌다. 재벌기업이 독점한 제작·투자·배급의 문제가 100년을 기념하는 해에 많은 부분 시정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윤여수 기자 tadada@donga.com

한국영화 100년 '최고의 작품' | 1961년작 강대진 감독의 '마부'

격변의 세월, '말수레'에 실린 서민의 애환

1919년 10월27일 '의리적 구토' 이후 시작된 한국영화 100년의 역사는 수많은 걸작을 관객에게 선사해왔다. 당대 대중의 감성을 어루만지며 진한 감동과 웃음과 눈물을 안겨준 대표적 작품이 여기 있다. 창간 11주년을 맞은 스포츠동아가 감독, 제작자, 평론가 등 100인의 영화 전문가들에게 한국영화 100년, 그 최고의 작품을 꼽아 달라고 요청해 얻은 답변이기도 하다. 그 걸작들을 시대 순으로 소개한다.



배우 김승호(왼쪽)와 황정순은 영화 '마부'에서 서민의 애환을 드러내며 관객의 사랑을 받았다. 사진은 영화의 한 장면.

사진제공 | 한국영상자료원

전근대 상징하는 마부의 눈으로
요동치는 시대의 흐름 잘 그려내
'오발탄'과는 결이 다른 리얼리즘
11회 베를린영화제 은곰상 영광

초로의 아버지와 새롭게 어머니가 되고자 하는 여인, 그리고 이들의 결을 따스하게 지키는 자식들. 이들을 축복하듯 눈이 내린다. 그 길 위에서 가족은 이제 또 달리 새로운 일상으로 향하는 중이다. 이들의 뒤로 지금은 사라진 중앙청 건물이 보인다.

중앙청! 중앙 돌 상부의 침탑으로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권위주의의 냄새를 잔뜩 풍겨낸 건축물은 조선 왕조의 역사를 상징하는 경복궁 근정전 앞에 버섯이 들어섰다. 일제가 1926년 완공해 식민통치의 핵심적 거점으로 삼았던 조선총독부 건물이었다. 해방 이후 미 군정청으로 쓰였던 건물은 훗날 정부청사로, 다시 국립중앙박물관으로 변모했다. 하지만 일제 잔재의 상징적 건물로서 마땅히 청산의 대상이 됐다. 1996년 11월 완전히 철거됐다.

어쩌거나 해방 이후 중앙청은 광화문과 함께 서울 도심 한복판을 지칭하는 곳이였음을 부인할 수는 없다. 바로 그 앞을 지나며 새로운 내일을 맞으려는 가족, 그 차림새로 보아 그저 일상을 연명하기에 급급한 서민의 일행이었으니, 이들은 도심의 근대적 풍경 앞으로 막 진입하는 것처럼 보인다. 강대진 감독이 연출한 1961년작 영화 '마부(馬夫)'의 마지막 장면이다.

'마부'는 말이 끄는 수레로 짐을 실어 나르며 자식들을 키워내는 아버지의 이야기다. 장남의 고등고시 합격은 꿈꾸는 아버지는 언어 장애로 남편에게 쫓겨나 돌아온 만팔을 애써 내친다. 터무니없는 욕망으로 신분 상승을 꿈꾸는 둘째 딸과 말쑥꾸러기 막내아들도 속을 알게 하기는 마찬가지다. 장남의 고시 실패와 만팔의 비극적 운명, 부자집 아들에게 농락

당하는 둘째 딸 등 시련은 끝이 없다. 다만 마부의 식모와 나누는 따스한 교감이 작은 위안이다.

전쟁과 혁명 등 굴곡진 역사의 언덕을 수없이 넘나드는 동안 현실은 어느새 전근대적 현실에서 채 벗어나지도 못한 채 근대의 대도로 빠르게 나아가던 시대. 마부라는 직업과 그가 이끄는 말이 상징하는 전근대적 상황은 빠르게 흘러가는 근대적 현실과 부딪히는데, 아버지의 일을 부끄러워하는 자식들이 바로 그 증거다. 남편의 폭력이라는 전근대적 억압에 시달리는 여성으로서 딸의 고통을 외면하는 아버지의 가부장적 태도도 마찬가지다. 아버지로서 그 아픔을 끝내 감당해내야 하지만 현실은 서럽고 가난하기만 하다.

장남의 고시 합격은 그래서 이 모든 상황을 해결해주는 아버지의 유일한 희

망. 마침내 장남은 아버지의 소원을 이루고, 아버지와 식모는 새롭게 인연을 맺으며 한 가족을 다시 이룬다.

강대진 감독은 세밀하고 밀도 있는 현실을 카메라에 담아내며 유현목 감독의 '오발탄'과는 결이 다른 또 다른 리얼리즘의 세계를 보여줬다. 특히 1960년대 초반 말수레를 끄는 마부의 시선을 따라 드러나는 서울이라는 도시와 거리의 다양한 근대적 풍경을 이룬다.

아버지 역의 김승호는 역시 강대진 감독과 호흡을 맞춘 전작 '박서방'에 이어 서민의 한 전형적 캐릭터로서 기록되고 있다. 장남 신영균을 비롯해 황정순, 엄앵란, 조미령 등이 함께한 영화는 제11회 베를린 국제영화제에서 은곰상(심사위원특별상)을 수상하며 한국영화사에 또 한 편의 걸작으로 남았다.

윤여수 기자 tadada@donga.com

편집 | 김대건 기자 bong82@donga.com

업소용 전기솥밥기계 NEW IH-디지털아궁이

36개월 전액 할부 시스템으로 전국 방방곡곡에서 주문 선택



인덕션 밥 조리기 업계 최초 압력식 초벌 기능 탑재

인덕션 밥 조리기 전문업체 (주)가족에프에스가 세련된 디자인과 소비자 중심의 설계로 한층 업그레이드된 "2019 스마트 디지털 아궁이"를 출시했다. "디지털 아궁이" 하면 식당 운영하시는 분들이 먼저 알아봐 주시는 기계로 밥맛부터 품질, AS까지 뭐하나 빠짐없는 기계로 정평이 나왔다. 기존 가스 돌솥밥 기계보다 공간 차지가 덜하고 유해가스와 열기가 없어 주방, 홀을 비롯한 어디서든 전기가 있는 곳이라면 설치가 손쉽게 가능하다. 밥맛은 시골 가마솥에서 갖 지은 듯한 구수한 가마솥밥맛을 내기 위해 압력 방식을 선택했으며 자동 온도 센서로 버튼만 누르면 1~4인분까지 자동으로 설정되어 완성된다. 또한 완성된 밥은 20분간 밥맛의 변질 없이 자동으로 보온이 되어 단채손님, 예약손님 등에 맞게 나갈 수 있다.

2019 스마트 디지털 아궁이의 특징

이번 신제품 스마트 디지털 아궁이는 초벌 기능을 탑재했다. 주식회사 가족에프에스는 창립 후 10년 동안 밥 연구에 매진한 결과 초벌 기능이라는 새로운 기능을 연구 개발했다. 초벌 기능은 솥에 여유만 있으면 적은 구수에서도 많은 양의 밥을 해내는 기능이다. 요즘 같은 불경기에 많은 구수의 기계를 사자니 부담스러운 분들에게 좋은 소식이며, 12구의 기계에서 점심시간에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이 200그릇 정도 된다. 2019 스마트 디지털 아궁이의 초벌 기능은 손님이 가장 많이 방문하는 시간인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1시 전에 초벌 기능으로 밥을 해놓고 손님이 방문했을 때 3분만 데우기 기능을 활용하면 처음에 한 밥과 같은 밥을 내놓을 수 있다. 11시에 한 밥을 물 한 방울 넣지 않고 1시에 데워도 처음한 밥맛이 그대로 살아나는 게 특징이다. 이렇게 하면 인건비, 시간, 노동력

모두를 절약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 업체 측 설명.



디지털 아궁이를 구매한 대전휴게소 상하행선 관계자는 "이전에는 많은 구수의 제품 구매를 해야 하기 때문에 부담이였지만 지금은 적은 구수로도 손님이 한꺼번에 많이 와도 바로 처음 한 밥맛으로 나갈 수 있어 많은 양의 밥을 하기에 좋은 시스템"이라고 말했다.

스마트 디지털 아궁이 간편구입 방법

제품모델은 8구, 10구, 12구, 15구, 16구, 20구, 25구 등 7가지 모델로 구비돼 있으며 업소에 맞게 구매하시면 되고 구매전 전화로 시연 예약을 하면 전문 매니저가 방문해서 밥맛, 기계의 사용법, 시스템 이해, 구매 조건을 들어본 후 설치예약을 하면 된다. 시연 시 대폭 할인이 있으며 설치 후 홍보를 위한 배너, 현수막, 온라인 홍보도 지원하고 있다. 또한 런칭기념 전액할부, 36개월저리할부 등도 있으며 빌려 쓰는 렌탈시스템도 있다.

매출상승 보장!



스마트 디지털 아궁이 문의 1544-7871